

중국 현대 여성 작가 丁寧의 삶과 詞 창작

- 『還軒詞』를 중심으로*

김선**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丁寧의 생平和 詞壇배경
3. 丁寧의 師弟 관계와 여성 작가와의 정신적 교류
4. 丁寧과 남성 지식인과의 교류
5. 丁寧의 질병과 의사와의 관계
6. 丁寧의 근현대 체험과 詞 창작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현대 여성 작가인 丁寧은 李祁, 沈祖棻과 더불어 現代女性중에서 3代 詞人에 손꼽히는 걸출한 詞人으로 험난했던 삶의 여정을 진실한 감정과 뛰어난 文才로 詞에 토로하여 현대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현실을 생생하게 투영하였다. 丁寧은 20대 초반에 이혼한 후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고, 그녀가 겪은 상처와 고통을 피눈물로 창작하였다. 丁寧의 詞集명은 『還軒詞』로서 시기별로 분류하면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창작한 「曇影集」 30수,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창작한 「丁寧集」 55수, 1939년부터 1952년까지 창작한 「懷楓集」 74수, 1953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523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B5A07045236)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년부터 1980년까지 창작한 「一厂集」 45수로 구성되어 전부 204수의 詞를 창작하였다.¹⁾

丁寧의 詞는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없고 해외에서도 그녀의 詞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蔡文錦은 「저명한 女詞人 丁寧年譜」에서 丁寧이 태어난 출생년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사건을 간략하게 나열했지만, 발생한 사건들의 전후 맥락이나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²⁾ 劉夢芙는 「二十世紀 걸출한 女詞人 丁寧과 還軒詞」에서 丁寧의 創作과정과 『還軒詞』의 정신세계를 청년시기, 중년시기, 만년시기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고, 『還軒詞』의 예술 및 『還軒詞』의 편집과 교감에 대해 소개했지만, 詞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³⁾ 馬興榮의 『丁寧年譜』에서는 丁寧의 전기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년도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詞作을 배열하였다. 陳碩의 『民國女詞人 丁寧과 還軒詞』는 民國詞壇과 시대배경에 대한 논술이 상세하지 않고, 丁寧의 詞를 내용과 풍격 면에서 토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현대 여성 작가 丁寧의 험난했던 삶과 詞 창작을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丁寧이 남긴 기록이나 동시대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그녀의 생평과 詞壇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丁寧의 스승 陳含光과 제자 黃懿嫻, 王元莊, 卓孟飛와 교류한 詞를 선별하여 토론하고, 그녀의 가장 친한 詩友였던 戴味琴과의 관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셋째, 丁寧이 근현대 詞壇에서 저명한 詞學家인 夏承燾, 龍榆生과의 관계와 證壇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丁寧이 평소 지녔던 질병에 대한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丁寧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개혁개방시기까지 체험하였던 여성으로서 그녀의 詞속에 반영된

1) 劉夢芙에 의하면 『還軒詞』의 판본은 6가지가 있다. 1957년 8월 周子美가 교감한 판본으로 「曇影集」, 「丁寧集」, 「懷楓集」 3권이 있고 『還軒詞存』이라 불렀다. 1978년 판본에서는 「一厂集」을 보충하였다. 1980년 판본에서는 『還軒詞』으로 개명하였다. 丁寧이 죽은 후에 안휘성 도서관 古籍部에서 1981년 6월에 『還軒詞』를 인쇄하였다. 1985년 安徽文藝出版社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판본이 있다.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34-35쪽.

2) 蔡文錦, 「著名女詞人丁寧年譜」, 『文教資料』, 1994(05), 1-9쪽.

3) 劉夢芙, 「二十世紀傑出女詞人丁寧與其『還軒詞』」,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21쪽.

시대 체험과 현실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2. 丁寧의 생평과 詞壇배경

丁寧의 본명은 瑞文으로 1902년 3월5일 江蘇 鎮江에서 출생하였고 태어난 지 13일 만에 생모가 병사하여 계모의 손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듬해 揚州로 이사하였다.⁴⁾ 아버지는 揚州와 八縣裕寧 재무국에서 일하던 지방 유지였다.⁵⁾ 丁寧이 13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丁寧은 1964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한 「臨江仙·家庭回憶(童年)」를 지었다.

入世旬三萱蔭失, 생후 13일 만에 어머니 그늘을 잃었고,
北堂色笑難溫. 계모의 안색이 따뜻하기 힘들었지.
偏教五女聚衰門. 다섯 딸이 쇠퇴한 가문으로 모여 들어,
賠錢常比貨, 늘 재물에 빚대어 돈 갚으라고 하니
如鼠亦堪嗔. 쥐처럼 대해서도 분노를 참았지.

釀就百花成大錯, 온갖 꽃으로 독주를 담아 큰 잘못이 생겨,
蕭牆風切靈椿. 쓸쓸한 담장에서 아버지를 엄하게 꾸짖었지.
早居繡屋暮荊榛, 아침에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저녁엔 가시덤불이네.
麻衣皆血淚, 상복 전체 피눈물 범벅이고,
虎視尙紛紛. 췌려보는 보는 눈은 아직도 많네.⁶⁾

丁寧은 생후 13일 만에 생모를 잃어 계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계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집착하였다. 이 詞에서는 자신이 쇠퇴한 가문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와 계모가 어린 자신을 일찍 시집보내야만 하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詞 속에 나타

4)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42-143쪽.

5) 蔡文錦, 『著名女詞人丁寧年譜』, 『文教資料』, 1994(05), 1쪽.

6)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89-90쪽.

나는 온갖 꽃은 재산을 노리는 못된 친척들을 가리키고, 참죽나무는 친척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火病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유하였다. 丁寧은 아침과 저녁이라는 짧은 시간의 對比를 통해 평온했던 집안에 갑자기 시련이 닥쳐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였고,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친척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계모는 16살이었던 丁寧을 黃福華⁷⁾와 결혼시켰다. 黃福華는 부잣집 자제였지만 술과 담배에 중독되었고, 도박과 외도를 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감정은 점점 악화되었다. 丁寧은 결혼한 후에 文兒를 낳아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22세에 文兒가 갑자기 요절하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남편에게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아 먼저 이혼을 제기하였다. 丁寧은 「臨江仙·婚姻回憶(青年)」에서 전통 혼인 제도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였다.

聞說扶床初學步, 듣자하니 상을 붙들고 처음 걸음마 배웠고,
赤繩繫定難更. 붉은 줄에 매여 정해진 운명 바꾸기 어렵네.
隨鷄隨犬注前生. 닭과 개를 좇는 것이 전생에 정해졌으니,
飄茵誠可喜, 인연을 맺은 것은 실로 좋지만,
墮溷亦何憎. 풍진에 떨어진 것 또한 어찌 싫다 하리오.

欲借樊籠培翮, 새장을 구실 삼아 깃족을 복돋우려 했지만,
當筵誓水盟成. 대자리를 마주보고 서약하며 맹세하였지.
從今塵夢不關情. 지금부터 속세의 몽환은 개의치 않네.
澄心依古佛, 맑은 마음으로 부처를 의지하고,
力學老青燈. 힘써 배우며 푸른 등불을 오래 밝혔네.⁸⁾

丁寧은 자신이 가장 가장 걸었던 유아기를 떠올리고, 9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계모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혼하게 된 비참한 상황을 떠올렸다. 그녀는 술과 도박에 빠지고 외도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남편을 닭과 개에 비유하였고,

7) 徐壽凱, 「我所知丁寧先生的一些事」,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45쪽.

8)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89~90쪽.

남편과의 악연으로 인해 자신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였다. 丁寧은 4살밖에 안된 딸의 죽음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새장 안에 갇혀 남편의 모든 악행을 참아왔던 날을 후회하고 근대 시기에 용감하게 이혼을 먼저 제기하였다. 그러나 계모는 丁寧에게 아버지 靈前 앞에서 재혼하지 않고 평생 자신을 봉양할 것을 맹세하도록 강요하여 丁寧은 50년 동안 외로운 독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⁹⁾ 丁寧은 이혼한 후에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과 미련을 내던지고 종교에 歸依하여 상한 마음을 추스르며 딸을 잃은 고통을 달랬다.

丁寧은 1924년 23살에 대학자인 陳含光 선생한테 詩詞를 배웠고, 劉聲如한테 검술과 무술을 배웠다.¹⁰⁾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남경 中央 도서관에서 근무하였다.¹¹⁾ 1952년에 丁寧은 華東革命 大學에 가서 공부하였고, 졸업한 후에 安徽省 도서관 직원으로 취직하였다. 1952년에 丁寧은 安徽省 도서관에 취직하여 合肥에 정착한 후 揚州에 있는 집과 가산을 전부 국가에 기부하였다.¹²⁾ 1980년 9월 丁寧은 合肥에서 병사했는데 향년 79세이었다.¹³⁾

劉夢芙에 의하면 晚晴과 民初시기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신식학당의 창건, 신해혁명의 승리, 신문화 운동의 전개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 사회의 존중을 받아 여성이 閨房을 떠나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고, 총명한 재주와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 문학가, 예술가, 학자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丁寧은 애절하고 불우한 인생을 詞로 표현하는데 뛰어났고, 『安徽近百年詩詞名家叢書』 第二集에서 丁寧의 『還軒詞』를 수록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¹⁴⁾ 曹辛華에 의하면 民國시기에 대량의 女性詞인이 출현하였고, 民國 女詞人の 생평, 詞集, 詞學활동, 창작경험을 통해 詞境면에서 民國 女性詞人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척을 하였다. 民國 女性詞人들은 전통 女詞人처럼 수심을 표현하면서도 性別의 한계를 벗어난 정감과 내용을 詞에 표현하였고 民國 女性詞人들은

9) 徐壽凱, 「我所知丁寧先生的一些事」, 上揭書, 146쪽

10) 馬興榮, 『馬興榮詞學論稿』(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867쪽

11) 上揭書, 877-879쪽

12) 上揭書, 877-879쪽

13) 上揭書, 886쪽

14) 劉夢芙, 「二十世紀傑出的女詞人丁寧與其還軒詞」, 丁寧著, 劉夢芙編校,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쪽

예술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드러냈다.¹⁵⁾

3. 丁寧의 師弟 관계와 여성 작가와의 정신적 교류

丁寧이 스승 陳含光과 제자 黃懿嫻, 王元莊, 卓孟飛와 교류한 詞는 아래 도표와 같다.

詞人	詞牌	形式	詞題	對象 / 主題
丁寧	望江南	小令	贈寒師迎春花	陳含光 / 贈答
丁寧	甘州	慢詞	重陽後四日, 含師繪春夜園林圖見賜, 賦此謝之	陳含光 / 題畫
丁寧	木蘭花慢	慢詞	陳師母挽詞	陳師母 / 悼亡
丁寧	臨江仙	小令	贈元莊	王元莊 / 贈答
丁寧	鶯啼序	慢詞	元莊詞友挽詞	王元莊 / 悼亡
丁寧	臺城路	慢詞	清明後五日過五星寺, 視元莊殯宮	王元莊 / 悼亡
丁寧	臺城路	慢詞	一九七六年八月二十六日夜半, 坐卓氏中庭, 聽揚州臨震消息, 回憶三十九年前沙洲避亂時, 光景依約似之, 感賦	卓孟飛 / 追憶

丁寧은 陳含光선생한테 詩詞와 그림을 배웠는데, 스승은 丁寧의 재능을 발견하고 宋代 李清照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하였다.¹⁶⁾ 陳含光은 駢文과 詩가 뛰어났고, 서예와 회화뿐만 아니라 篆刻 면에서도 유명하였다. 丁寧은 이혼 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陳含光선생한테 詩, 서예와 變문을 배워 자신의 재능을 충실하게 키웠다. 丁寧은 「甘州」의 序文에서 “重陽節이 지난 4일 후에 陳含光 스승이 「春夜園林圖」를 그려 주셔서 詞를 지어 감사드린다”¹⁷⁾고 밝혔다.

15) 曹辛華, 「論民國女性詞的創作」, 『學術研究』, 2012年 第5期, 147쪽.

16) 徐壽凱, 「丁寧先生與諸大家」, 『江淮文史』, 2010, 131쪽.

17) “重陽後四日, 含師繪「春夜園林圖」見賜, 賦此謝之.”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29쪽.

罷輕繪香霧恁霏霏, 低回自評論. 似何時曾見, 人間芳圃, 世外仙村. 悵望層樓縹緲, 簾影隔紅塵. 惟有亭亭月, 長伴吟魂.	가벼운 비단처럼 덮인 안개 이렇게 자욱한데, 머뭇거리다 논평하기 시작하네. 전에 언젠가 본 것 같아라. 인간 세상 아름다운 정원, 세상 밖 신선이 사는 마을. 어렵פות한 층층 누각 시름없이 바라보니 주렴 그림자는 속세와 떨어져 있네. 우뚝 솟은 산마다 달만 떠 있어, 읊조리는 영혼과 오래 벗하네.
---	---

彈指鶯花如夢, 又寒催刀尺, 飲散萸樽. 謝春風點染, 珍重駐清芬. 掩芸帷、心香低視, 問幾生、 修到個中身. 深深拜, 證無聲處, 芳景重溫.	앵무새 지저귀고 꽃 핀 것 잠시 꿈꾼 것 같고, 추위는 또 재봉을 재촉하고, 수유로 빚은 술을 마시고 헤어지네. 봄바람 부니 글 다듬는 것 관두고, 맑은 향기에 머무는 것 소중히 여기네. 향긋한 휘장 가리고, 경건히 낮게 축원하고, 묻노라니 몇 번이나 환생해야 이 몸을 닦을 수 있는지? 공손히 절하며, 평소에 숨죽여 참선하며, 아름다운 경치 보며 다시 옛 추억 떠올린다. ¹⁸⁾
---	---

丁寧은 스승인 陳含光이 선물로 준 「春夜園林圖」를 감상하며 인간 세상속의 정원과 속세를 떠난 선경속의 마을이라고 평론하였다. 그림 속에 보이는 누각과 주렴 그림자 및 우뚝 솟은 달을 묘사하였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어느새 시들어 버려 가을이 다가 오는 것을 재촉하여 먼 곳에 있는 입을 위해 옷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였고, 丁寧은 실내 공간에서 심신을 수양하며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 위안을 삼았다.

丁寧은 黃懿嫻, 王元莊, 卓孟飛 세 명의 제자에게 詞를 창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제자 黃懿嫻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를 따라 생활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그녀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이 病死

18)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29쪽.

한 후 丁寧과의 연락조차 두절되었다.¹⁹⁾ 여 제자 王元莊은 항일 전쟁 시기에 혁명에 참가한 적이 있고 吳堅으로 개명하였다. 1956년 合肥에서 근무하던 吳堅은 지난날 은사인 丁寧이 合肥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劉夜烽과 함께 省도서관에 가서 丁寧을 만났다. 그 후 매년 명절이나 丁寧 생일에 王元莊은 홀로 사는 선생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²⁰⁾ 王元莊이 사망한 후 丁寧은 제자를 그리워하며 哀悼하는 「臺城路」를 지었다.

野棠花落鶯聲悄.	들판의 해당화 시들고, 앵무새 소리 고요하니,
匆匆好春餘幾.	아름다웠던 봄날 여운 빨리 지나가네.
拄壁殘幢.	벽에 헤진 휘장 걸고,
眠苔斷碣.	깨진 비석에 이끼 서린 채
消盡年光如水.	강물 같은 세월만 흘러갔네.
虛廊徒倚.	공연히 텅 빈 회랑에 기대어,
問紫陌春遊.	묻노라니, 신선 거리의 봄나들이에
錦鸚來未.	비단 안장을 깐 말은 왔었는지?
塵幔無聲.	먼지 일으키는 수레는 소리 없고,
素盤殘蠟自垂淚.	흰 소반에 남은 초 홀로 눈물 흘리네.

荒庭柳綿又起.	황량한 정원에 버들 솜 다시 일어나고,
大堤萬千縷.	큰 제방엔 수 만개 실 가닥 휘날리네.
陳夢難繫.	옛 꿈에 매어 있기 힘들고,
舞鏡鸞驕.	뽀내는 난새 거울 속에 춤추고,
循檐鵲喜.	즐거운 까치 처마를 뽀뽀한다.
重展遠山新翠.	먼 산에 신록이 다시 펼쳐지니,
閑愁漫理.	한가로운 수심이 부질없이 일어난다.
又隔院昏鐘.	정원 너머 저물녘 종소리 또 울리며
喚人歸矣.	행인더러 돌아가라고 재촉하네.
悵望平林.	수평선 수풀을 시름없이 바라보니,
斷霞呈晚霽.	비 갠 저녁에 조각 노을 드러나네. ²¹⁾

19) 徐壽凱, 「我所知丁寧先生的一些事」, 上揭書, 151쪽.

20) 上揭書, 152쪽.

21)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77쪽.

丁寧은 서문에서 “청명절이 5일 지난 후에 五星寺를 지나다가 元莊의 묘지를 보았다”²²⁾고 밝혔다. 上片 첫 구에서 꽃이 시들어 가는 늦봄의 경치를 읊었고, 제자 王元莊의 묘지에서 애도하며 그녀와 함께 했던 지난 세월도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제자가 떠난 세상에서 공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봄나들이 갔지만 고독이 밀려왔고 저녁에 홀로 초를 태우며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다. 丁寧은 室外의 황량한 경치를 묘사하여 室內의 방황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제방에 휘날리는 버들 솜의 모습을 통해 제자 王元莊과의 이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丁寧은 실내 병풍 속에 춤추는 난새와 처마 밑에서 기뻐하는 까치의 형상을 동적으로 묘사하여 쓸쓸하고 외로운 심경을 지닌 화자와의 대비를 연출하였다. 그녀는 遠景속의 신록과 近境속의 정원을 묘사하여 내면의 수심을 드러내고 석양의 시각적인 이미지와 종소리의 청각적인 수법을 통해 행인의 돌아가고픈 심정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평평한 수풀 속에 펼쳐지는 저녁노을의 암담한 이미지를 통해 가슴속에 맺힌 恨과 悲哀를 부각시켰다.

丁寧이 晩年에 合肥에서 가르쳤던 卓孟飛는 1967년 下放한 지식 청년으로 1971년 丁寧이 사는 근처에 살게 되어 그녀에게 고전 詩詞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丁寧은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詞를 가르쳤다. 丁寧이 병들었을 때 卓孟飛는 직접 名醫를 모셔와 치료받게 도와 드렸고,²³⁾ 1978년 8월 合肥에 지진이 났을 때 丁寧을 자신의 집으로 避身하게 하였다. 丁寧은 「臺城路」의 서문에서 “1976년 8월20일 한밤중에 卓氏 정원에 앉았는데 揚州에 지진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39년 전 沙洲에서 피난했을 때를 회상하니 광경이 그 때랑 비슷하게 느껴져 짓는다.”²⁴⁾고 밝혔다.

驚靈駭浪人間世,	인간 세상에서 번개와 파도 소리에 놀라니,
藏舟已無餘地.	세상만사 변화무쌍하여 여지가 없네.
淝水孤萍,	비수의 외로운 부평.

22) “清明後五日過五星寺，視元莊殯官。” 上揭書，77쪽.

23) 丁寧著，劉夢芙編校，『還軒詞』，合肥，安徽文藝出版社，153-154쪽.

24) “一九七六年八月二十日夜半，坐卓氏中庭，聽揚州臨震消息，回憶三十九年前沙洲避難時，光景依約似之，感賦。” 上揭書，1985，79쪽.

江關倦旅,	강가의 지친 나그네,
又聽秋林哀吹.	가을 수풀 속에서 애달픈 소리 또 들려오네.
淒涼故里.	고향 마을 처량하구나.
嘆卅載因循,	탄식한다. 30년간 순리에 따랐지만,
未成歸計.	돌아갈 염원 이루지 못한 것.
轉眼榛蕪,	순식간에 잡초 우거지고,
竹西煙景付流水.	안개 낀 죽서정 경치 흐르는 강물 따라가네.

浮生可憐有幾.	덧없는 인생 가련한데 얼마나 남았는지?
風煙銷歲月,	속세에서 시간 흘러가고
陳夢猶記.	묵은 꿈 여전히 기억난다.
野岸風高, 荒洲露冷,	들 기슭 바람 세찬데, 황량한 섬 이슬은 차고,
夜半鷗聲如魅.	한 밤중에 홀린 듯한 솔개소리 들려온다.
鄉心欲碎.	고향 향한 마음 부서지네.
盡蹀躞虛廊,	텅 빈 행랑 다 걷고 나서,
苦吟無寐.	고통 속에 신음하며 잠들지 못하네.
俛望遙天,	먼 하늘 시름없이 바라보니,
密雲紅似醉.	취한 듯한 짙은 구름 붉어라. ²⁵⁾

丁寧은 자신의 고향인 揚州에 갑자기 한밤중에 번개 치며 지진이 일어나고 집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安徽省 合肥 남쪽을 흐르는 淮水의 지류에 있는 외로운 부평을 통해 이리저리 떠돌며 표류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기탁하였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애달픈 소리의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마음속의 수심을 세밀하게 드러냈다. 丁寧은 지난 3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였다. 丁寧은 우거진 잡초와 안개 낀 죽서정의 경치를 통해 암담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수심을 표현하였다. 뜻밖의 사건이나 시련이 닥쳐오는 인생의 덧없음과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였다. 丁寧은 대구를 사용하여 외부 경물의 황량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풍파를 비유하였고, ‘밤’의 어두운 이미지를 사용하여 처량하게 들

25)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79쪽.

려오는 술개 소리를 부각시켜 양주에 있는 고향 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처절하게 묘사하였다.

丁寧은 평소 揚州에 사는 고향 친구인 戴味琴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詞를 지었는데 아래 도표와 같다.

詞牌	形式	詞題	主題
高陽臺	慢詞	中秋坐雨, 有懷味琴	離愁
喝火令	小令	月影侵簾, 愁懷如織, 書寄味琴	離愁
喝火令	小令	一夕西風, 離懷百轉, 再寄味琴	離愁
浣溪沙	小令	送味琴之京江	離愁
點絳脣	小令	雪中過味琴舊居	離愁
鷓鴣天	小令	感賦寄味琴	離情
鷓鴣天	小令	得味琴揚州來書	離情
燭影搖紅	慢詞	辛巳秋懷味琴	離愁
鵲踏枝	小令	甲申仲春寄味琴	離愁
江城子	慢詞	西樓對月贈味琴	離愁
慶春澤慢	慢詞	詩友戴味琴輓詞	悼亡

「慶春澤慢·詩友戴味琴輓詞」에서 丁寧은 “대미금은 애강 사람이다. 덕망 높은 축공 선생의 딸로서 재주가 풍부하고 품성이 바르고 삼십 년간 누각에서 살았으며 평생 흰 비단옷을 입었다. 내가 安徽省으로 옮긴 후에 소식이 단절되었다. 다행히 고향 사람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녀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나 지난 것을 알게 되었다. 흉한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흘러 붓에 묵을 적셔 통곡을 대신 한다.”²⁶⁾고 밝혔다. 「慶春澤慢·詩友戴味琴輓詞」를 살펴보면:

菊傲霜侵,	국화에 오만한 서리가 스며들고,
蓮貞雨妒,	연꽃을 곧은 비가 시샘하는데,
衆芳搖落堪憐,	수많은 꽃들 시들어 가련하네.
雪魄冰魂,	고결한 매화의 혼백은
驂鸞竟返瑤天,	난새 방울 찬 결마 타고 선경으로 돌아간다.

26) “味琴, 哀江人. 耆宿筑公先生之女, 才豐命蹇, 秉性堅貞, 卅載樓居, 終身縞素. 自余遷皖後, 音問遂阻. 頃得鄉人書, 知去世已將十年. 惡耗傳來, 肝膈爲碎, 傾淚濡毫, 以代痛哭.”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80쪽.

藥珠一任花如錦,	선궁에서 비단처럼 고운 꽃에 내맡겼는데,
想臨風、縞袂依然.	생각난다. 바람 마주한 흰 소매 의연했던 것.
渺荒煙.	황량한 안개는 아득하고,
寂寞青山,	청산은 적막한데,
何處長眠.	어느 곳에서 고이 잠들었나!

百般端正天然好,	매사에 단정하고 천성이 순수했고,
信皎如玉潔,	맑은 옥처럼 신의는 고결하였고,
潤比珠圓.	둥근 진주처럼 온화하였지.
人去樓空.	입 떠난 누각 텅 비었는데,
淒涼塵滿遺篇.	처량한 유고에 먼지만 가득하네.
明知此別無多日,	분명 이번 이별 얼마 가지 않을 것 알지만,
願蒼蒼、早盡餘年.	점점 늙어가니 속히 여생을 마치고 싶어라.
恨綿綿,	서린 한은 하염없고,
無限傷情、都付啼鶯	상한 마음 끝이 없어
都付啼鶯	울부짖는 두견한테 전부 부친다. ²⁷⁾

이 詞의 上片에서는 여러 꽃들이 시든 모습을 통해 戴味琴의 죽음을 비유하였다. 丁寧은 戴味琴의 魂魄을 고결한 梅花의 이미지로 부각시켰고, 이생을 떠나 仙境으로 가는 戴味琴을 상상하며 과거 그녀가 입었던 흰 옷을 떠올렸다. 丁寧은 황량하고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그녀가 묻힌 묘지의 쓸쓸함을 묘사하였다. 下片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戴味琴의 온화한 성품과 신의가 두터웠던 모습을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丁寧은 과거 戴味琴의 모습을 회상하다가 친한 친구는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혼자만 남아있는 누각에서 공허하고 쓸쓸함을 느끼며 그녀가 쓴 詩文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丁寧은 자신도 머지않아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을 예측하며 친구를 따라 俗世를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結尾에서 丁寧은 가슴속에 맺힌 恨과 상처를 가눌 수 없어 피토하며 울부짖는 두견새의 이미지를 등장시켜 내면의 슬픔과 고통을 절절하게 토로하였다.

27)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80쪽.

4. 丁寧과 남성 지식인과의 교류

丁寧은 방대한 독서와 저명한 남성 문학가들과 詩詞를 주고 받으며 자신의 문학적인 기량을 키워나갔고, 자신이 일생동안 겪은 고통과 피눈물을 문학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丁寧은 남편과 이혼한 후에 詞에 哀愁가 담긴 정감을 기탁하여 가슴 속에 맺힌 恨을 토로하였다. 丁寧은 이혼녀로서 주위의 편견과 차별을 받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여러 스승을 만나 文學과 武術을 배웠다. 丁寧이 民初詞壇에서 저명한 詞學家 夏承燾, 龍榆生과 활발하게 교류한 詞는 아래 도표와 같다.

詞人	詞牌	形式	詞題	對象
丁寧	滿江紅	慢詞	髡公索舊稿,賦此謝之.	夏承燾
丁寧	鷓鴣天	小令	得髡公書感賦	夏承燾
夏承燾	揚州慢	慢詞	送丁懷楓歸揚州	丁寧
夏承燾	惜黃花慢	慢詞	送丁懷楓歸揚州	丁寧
丁寧	鷓鴣天	小令	感懷和忍寒	龍榆生
丁寧	水龍吟(二闕)	慢詞	楊花和忍寒用東坡韻	龍榆生
丁寧	謔踏枝(八闕)	小令	和忍寒用陽春韻	龍榆生
丁寧	鷓鴣天(三闕)	小令	薄命妾辭和忍寒,用遺山韻	龍榆生
丁寧	鷓鴣天	小令	柳枝詞和忍寒	龍榆生
丁寧	夢江南(二闕)	小令	落葉和忍寒,用翁山均	龍榆生
龍榆生	鷓鴣天	小令		丁寧
龍榆生	鷓鴣天(三闕)	小令	和元遺山薄命妾辭	丁寧
龍榆生	鷓鴣天	小令		丁寧
龍榆生	水調歌頭(二闕)	慢詞		丁寧

1931년 夏承燾는 程善之의 편지를 받아 丁寧의 詞를 접한 후에 丁寧의 재능과 詞의 진실함에 감탄하였고, 1933년 6월5일 夏承燾는 丁寧의 詞를 감상한 후 “피눈물로 써내려간 문자이며, 北宋의 歐陽修, 蘇軾같은 대가도 그녀만 못하다”²⁸⁾고 극찬하였다. 1938년 3월16일 丁寧이 일본군의 침략을 피해 계모를 모시고 상해

28) 徐壽凱, 「丁寧先生與諸大家」, 『江淮文史』, 2010, 132-133쪽.

에 도착했는데 9월 1일 夏承燾가 龍榆生の 집에서 처음 丁寧을 만났다. 1938년 10월4일 그는 龍榆生과 함께 丁寧의 집에 가서 『還軒詞』와 「朝沐歌辭」를 읽고서 침통하다고 느꼈고, 丁寧의 詞에 탄복하여 “수백 년간 여류 중에서 이런 재주는 없었다”²⁹⁾고 칭찬하였다. 丁寧은 「滿江紅」의 서문에서 “하승도가 옛 원고를 찾아줘서 이 詞를 지어 그에게 감사하다.”³⁰⁾고 밝혔다.

逝水沈沈,	흘러가는 강물은 깊고 깊은데,
流不盡、倦懷千疊.	수 없이 쌓인 지친 회포를 다 흘려보낼 수 없네.
却幻作、零箋斷穎.	헛되이 자잘한 종이에 남은 목적으로 쓰며
暗傳嗚咽.	남몰래 오열을 토하네.
離恨有天情自警,	하늘에 이별의 한 서려 홀로 마음 달래는데,
埋憂無地愁難絕.	고통 문을 곳 없어 수심 도려내기 힘드네.
算柔腸、	뒤엉킨 마음 따져보니,
恰似網中絲.	그물 속 실처럼
重重結.	층층이 엉켜 있네.

淒涼雨、伶俚月.	처량한 비, 외로운 달,
哀蟬怨、啼鵲血.	한 맺힌 매미 슬퍼하고, 피 맺힌 두견새 우네.
嘆十年禁受、	탄식한다. 십 년간 참았는데
一朝都決.	하루아침에 다 끝장난 것을.
陳夢漸隨青鏡黯.	옛 꿈은 청동 거울 따라 점점 희미하고,
微吟半逐寒蟬歇.	싸늘한 매미 따라 낮게 읊조리다 관두네.
更那堪回首覓音塵.	더욱이 고개 돌려 소식 찾다가 어찌
收蟬屑.	조그만 빈대 즙을 멈추게 하겠는가? ³¹⁾

丁寧은 近代시기에 파란만장한 逆境을 겪은 후에 詞 창작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맺혀 있던 피눈물과 怨恨을 끄집어냈다. 딸과의 死別로 인한 苦痛은 세월이 갈수록 丁寧의 마음속에 더 사무쳐 건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 詞에서 丁寧은 처량한 비 내리는 밤에 달을 쳐다보며 밀려오는 고통을 묘사하고 구슬피

29) 上揭書, 134쪽.

30) “髡公索舊稿、賦此謝之”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3쪽.

31)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3-14쪽.

울어대는 매미와 피 토하는 두견새의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나날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토로하였다.

龍榆生은 清末 民初의 著名한 詞人인 朱祖謀의 詞를 교감한 사인으로, 夏承燾의 추천을 통해 丁寧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편집을 맡았던 『詞學季刊』에 丁寧의 詞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그녀의 존재를 詞壇에 알렸다.³²⁾ 1938년 丁寧은 계모를 모시고 上海로 피난을 갔을 때 龍榆生의 집 근처에 살았다. 龍榆生은 직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丁寧의 고충을 알고, 그녀를 위해 上海에 소학교를 세우려고 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³³⁾ 『詞學季刊』의 主編을 맡았던 龍榆生은 「曇影詞」를 연속 등재하여 丁寧의 詞가 江浙일대에서 명성을 날렸다. 1941년 6월 丁寧은 龍榆生의 초청을 받아 南京에 가서 「同聲月刊」을 도와주었다. 그 당시 사회에서 丁寧이 '계모의 학대를 받았다'는 설이 나돌자, 龍榆生은 "친 모녀이고 서로의 지한다"³⁴⁾고 변호했지만 사실 친 모녀지간은 아니었다. 「鷓鴣天·柳枝詞和忍寒」을 살펴보면:

十里青蕪黯白門, 십리에 깔린 푸른 잡초, 남경 길은 암담하고,
幾番煙雨釀愁痕. 수차례 안개비 내려 수심 흔적 자아낸다.
因風弱絮拋家慣, 바람 부니 여린 버들 솜 툇하면 집 떠나는데,
拂水長條照影頻. 수면에 스친 긴 가지 그림자를 자주 비친다.

鄉夢斷, 海雲昏, 고향 향한 꿈 끊어지고, 바다 구름 어두운데,
夕陽無語暗銷魂. 말없이 석양 보며 남몰래 녀이 나가네.
春光駘蕩秋光促, 봄날 경치 감돌다 가을 햇살 재촉하고,
搖落難分怨與恩. 시들어 떨어지니 원망인지 은혜인지?³⁵⁾

丁寧은 十里라는 공간과 색채어를 사용하여 南京의 황량하고 암담한 모습을 포

32) 徐壽凱, 「丁寧先生與諸大家」, 『江淮文史』, 2010, 135쪽.

33) 上揭書, 136쪽.

34) 上揭書, 135쪽.

35)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52쪽.

현하였고 안개비의 몽롱한 이미지로 마음속의 수심을 자아냈다. 또한 여린 버들
숨의 이미지를 통해 자주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나그네로서의 방황과 애달픈 심정
을 드러냈고 버들가지 그림자를 통해 이별을 암시하였다. 丁寧은 고향인 揚州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었지만 점점 고향과 멀어져만 가는 현실을 개탄하
였고, 석양의 암담한 이미지를 통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不安과 苦痛을 토로하
였다. 그녀는 봄날 떨어지는 버들가지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과 은혜가 공존하는 복잡한 심리를 표출하였다.

5. 丁寧의 질병과 의사와의 관계

丁寧은 평소 만성적인 위 질환과 우울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의사가 자
신 앓고 있는 위 질환이 낫기 힘들다는 말을 떠올리고 詞를 지어 마음을 달랠다.
「浪淘沙慢」의 서문에서 “경신 동지 하루 전날에 밤에 추위 잠들지 못하자 지난일
이 조수처럼 밀려오고 갑자기 의사가 위 질환이 장차 낫지 않을 거라는 말이 떠올
랐다. 살아서 약마저 없으니 죽어서 다시 좋아지겠지. 베개에 기대어 詞를 지어
부질없이 읊조리며 새벽을 기다리네.”³⁶⁾라고 밝혔다.

夜堂靜,	밤에 고요한 집,
霜明露檻,	맑은 서리 난간에 맺힌 이슬,
砌響風葉,	섬돌마다 바람에 이는 잎 새 소리 울리네.
哀柝敲寒未歇.	애달프게 치는 딱따기 싸늘해도 멈추지 않고,
殘燈弄影欲滅.	희미한 등불은 그림자 희롱하며 꺼져가네.
又腸斷伶俚窺戶月.	또 애 끊어져 외로이 문 밖 달을 엿보니,
似瓊匣、鸞鏡初缺.	옥 상자 속의 화장 거울은 갓 일그러진 듯.
漫屈指浮沈廿年事,	부질없이 20년간 부침했던 일 손꼽아 헤어보니,
幽懷萬千疊.	수없이 쌓인 그윽한 회포뿐이네.

36) “慶辰冬至前一日，夜寒無寐，往事如潮，忽憶醫師言胃疾將不治，生無少樂，死亦復佳。倚枕成歌，漫吟待曙。”丁寧著，劉夢芙編校，《還軒詞》，合肥，安徽文藝出版社，1985，47쪽.

淒絕。此情更向誰說。	처량한 이 감정 더욱이 누구한테 말할까!
剩倚竹清愁飄蓬感，	대나무에 기대어 수심으로 떠돌던 감정 일어나
	니，
惘惘難自決。	멍멍하여 절로 도려내기 어렵네.
知淚也無多，	눈물조차 얼마 되지 않는 것 알지만，
和恨偏咽。	한이 쌓여 유독 오열하고，
倦魂暗結。	지친 영혼 남몰래 울분 맺히네.
尋舊吟，	예전에 읊조리던 곳 찾았는데，
却化西園枯蝶。	서쪽 정원 야윈 나비로 변했네.
的皚釵蓮珊瑚玦。	연꽃비녀 빛나고 패옥은 산호 같았는데，
繁華散，幻塵盡撤。	변화함은 흩어지고, 세상 먼지 전부 사라졌네.
逝波促，	흘러가는 물결을 재촉하니，
行人歸意切。	행인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
聽長漏，一刻三冬，	긴 밤 시계 소리 들으니 한 순간이 삼 년 같으니，
怎怨得，	어찌 원망하리오!
朝來兩鬢飛輕雪。	하루아침에 양쪽 귀밑머리 흰 눈처럼 살짝 날리
	는 것을. ³⁷⁾

丁寧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지 못해서 신경성 위 질환으로 고생하였고, 밤에 복잡한 想念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할 때 자신의 憂愁와 슬픈 정서를 詞에 기탁하였다. 그녀는 고요한 밤의 정적인 묘사를 통해 잎 새의 조그마한 움직임을 부각시켰고, 밤새 들려오는 딱따기 소리의 청각적 효과와 꺼져가는 등불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내면에 솟아나는 슬픈 정서와 질병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투영하였다. 과거에 겪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고 만감이 교차하고 항상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을 느끼며 초승달을 바라보았다. 丁寧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몰려와 처절한 감정을 느꼈지만, 주위에 소통할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녀는 20년간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표류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설움이 몰려와 견디기 힘들었다. 丁寧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恨'이라는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동안 무의식속에 억압되었던 감정이 솟아

37)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47-48쪽.

나자 대성통곡하며 오열하였다. 丁寧은 詞를 창작하면서 냉혹한 현실에서 지쳐버린 마음을 달래고 ‘수척한 나비’의 형상을 빌어 내면의 척박함을 기탁하였다.

丁寧은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戴眞光 의사에게 감사하는 詞를 지었다. 「鷓鴣天·贈戴眞光醫生」를 살펴보면:

蒲柳風欹玉露零. 깃버들 바람에 흔들리고, 가을 이슬 내리는데,
寒來暑往暗驚心. 더위 가고 추위 오니 남몰래 마음 놀래네.
可憐五度星霜改. 가련하게 5년이란 세월이 변했는데,
病骨支離一葉輕. 병세로 허약하여 잎 새처럼 가볍네.

萊蕪火, 玉壺冰. 열을 내린 무, 냉기 다스린 약단지.
採芝何處問山靈. 어디서 영지버섯 캐는지 산신령에게 묻네.
謝他重席高談客, 막학하여 고상하게 담론하는 손님께 감사하고,
一服還丹續此生. 한번 단약을 복용하여 이생의 삶을 지속하네.³⁸⁾

丁寧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5년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초가을의 쌀쌀한 날씨에 질병으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날로 수척해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였던 고통을 작은 잎 새에 비유하였다. 丁寧은 제자 卓孟飛가 소개해준 戴眞光 의사를 만나 자신이 고양이한테 전염된 것이 밝혀져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병세가 호전되자 생명을 구해준 훌륭한 의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였다.

6. 丁寧의 근현대 체험과 詞 창작

丁寧이 근현대 체험을 표현한 작품은 아래 도표와 같다.

38)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80쪽.

詞牌	形式	詞題	主題
揚州慢	慢詞	十月二十七日南行道中	피난
摸魚子	慢詞	丁丑江州歲除, 大雪盡日. 時倭亂方熾, 又將南遷矣.	전란과 피난
鶯啼序	慢詞	戊寅春暮, 避亂淞濱, 萍梗屢移, 烽煙未已. 觸緒懷歸, 漫吟成均.	피난
臺城路	慢詞	一九七六年八月二十六日夜半, 坐卓氏中庭, 聽揚州臨震消息. 回憶三十九年前沙洲避亂時, 光景依約似之, 感賦.	지진과 피난
減蘭	小令	六二年五一節	노동절
滿江紅	慢詞	中印邊界衝突書感	중국과 인도 분쟁
臨江先	小令	一九六四年三八婦女節作	여성의 날
滿江紅	慢詞	悼念周總理	悼亡

丁寧은 일제식민지 시기부터 개혁개방시기까지 체험하였던 여성으로서 詞에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였다. 「摸魚子」의 서문에서 “정축년 강주의 선 달그믐날 밤에 온종일 대설이 내렸다. 당시 왜란이 막 기세가 드세고 또 장차 남쪽으로 옮겨간다.”³⁹⁾고 밝혔다.

渺黃昏, 亂煙殘水.	아득한 황혼, 남은 강물에 퍼진 안개.
驚心又聽簫鼓.	놀란 마음에 또 전쟁소식 듣네.
飛瓊舞罷河山改,	휘날리는 눈발춤 다 멈추니 산하 변하고.
縹緲玉塵隨步.	어렵풋한 눈은 발자국 따라가네.
春莫誤.	봄이라고 오해하지 말게.
看如此清寒,	보아하니 이렇게 맑고 차가운데,
豈是東風絮.	어찌 봄바람 속 버들개지이겠는가?
孤懷倦旅.	고독한 영혼의 지친 나그네.
儘柏盞留更,	즉백 잔을 마시고 밤새 머물며,
糝盆照夜,	화로가 밤을 비추고,
倚枕自淒楚.	베개에 기대니 홀로 처량하구나.

虹橋路.	무지개 펼쳐진 다리 길.
煙景家家戶.	집집마다 연기 낀 경치이네.

39) “丁丑江州歲除, 大雪盡日. 時倭亂方熾, 又將南遷矣.”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31쪽.

流離知在何處.	정처 없이 떠도니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故鄉慣說蘋洲好.	고향에서 갈대 섬 좋다고들 하지만,
誰料故鄉非故.	누가 알까? 고향이 전과 다른 것을,
今且去.	지금 또 떠나가네.
問如此江湖.	물노라니 이런 강호에서
怎寄閑鷗鷺.	어찌 한가로이 갈매기, 해오라기와 지내겠냐고!
隔牆笑語.	담 너머 웃으며 말하며
正共祝明年.	마침 내년에 함께 기원한다.
時和歲稔.	날씨 좋아 풍년 맞이하길
一再瓣香炷.	거듭 숙연하게 향 피우네. ⁴⁰⁾

上片 첫 구에서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북 소리만 들어도 놀라며 폭설이 내린 겨울 저녁에 전란으로 피난 가는 모습을 그렸다. 丁寧은 버들개지처럼 날아오는 눈송이를 봄의 버들개지로 착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전란으로 이리저리 피난했던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술로 가슴속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처량함을 달랠다. 下片에서는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나그네의 설움을 느꼈고 문득 네 가래 풀을 보다가 고향 생각하게 되었지만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고향을 떠올리며 걱정하였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내년에 기후가 좋아 풍년이 들어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도하였다. 「揚州慢·十月二十七日南行道中」을 살펴보면:

哀角吟霜.	애달픈 빨갛소리에 세월을 읊조리고,
倦雲低壘.	낮은 보루 위 구름은 지쳐간다.
峭風滲透離魂.	매서운 바람 이별한 혼에 스며든다.
過煙蕪一霎.	잠시 연기 나는 거친 풀을 지나가니,
認拾翠前村.	아녀자 봄나들이 하는 앞 동네인 듯.
自湖上笙歌散後.	호수위에 생황노래 흩어진 후에,
柳疏蓮謝.	버들 성기고, 연꽃 시드니,
難罄孤樽.	외로운 술잔 다 비우기 어렵네.
祇淒涼.	단지 처량하다.
鷗鷺依稀.	갈매기와 해오라기 아련하고,

40)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31쪽.

殘夢猶溫. 어렵풋한 꿈은 아직 여전하네.

舊遊漫溯, 부질없이 전에 유람한 것 떠올리니,
怕重來, 근심되네. 다시 돌아왔을 때
憑弔無痕. 추억의 자취가 사라질까봐.
待紫塞烽銷, 북방 변방에 봉화가 끝나서,
靑溪渡穩, 푸른 시내에서 평온하게 건널 때쯤
往事誰論. 지난 일을 누구와 함께 논할까?
北望故園何在? 고향은 어디에 있는지 북쪽을 바라본다.
家國恨, 나라의 한을 품고
暗逐輕輪. 남몰래 가벼운 수레바퀴 따르네.
又斜陽如血, 게다가 석양은 피 같은데,
歸鴉喧趁黃昏. 돌아가는 갈 까마귀 황혼을 틈타 구슬피 우네.⁴¹⁾

丁寧은 전란으로 인해 남쪽으로 피난 갈 때 도처에 들려오는 빨각소리와 낮은 보루에 감도는 전운을 감지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해야만 했던 고통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丁寧은 여성들이 봄나들이 했던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사람들이 떠나 버린 후 고독이 밀려와 술로 달래며 처량한 심정을 읊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덜 깨어난 모습을 묘사하고 전쟁이 어서 종결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며 과거를 함께 논할 대상을 그렸다. 丁寧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피난가면서 석양과 갈 까마귀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丁寧은 「滿江紅·悼念周總理」에서 周恩來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匝地悲呼, 온 땅은 슬퍼하며 부르짖고,
都道是、國摧梁棟. 다들 나라의 동량이 꺾였다고 말하네.
看舉世、紛紛朝野, 온 세상 바라보니 분분한 조정과 민간,
斗山爭拱, 높은 덕행을 흠모하고 다투어 꺾안네.
盡瘁孤衷天日鑒, 전심 다한 외로운 마음을 하늘에서 해가 비추고,
匡時偉績實瀛頌. 시국 구한 위대한 업적을 천하가 송축하네.
仰遺容, 돌아가신 모습 쳐다보니,
慟極淚難禁, 如泉涌. 너무 애통하여 샘처럼 솟는 눈물 참을 수 없네.

41)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31쪽.

廉讓操, 人民誦.	국민이 칭렘했던 절개를 칭송하고,
彌留語, 人民痛.	국민이 임종했다는 말에 아파하네.
要遺蹤永伴,	영원히 남은 족적과 짝하여,
山河一統.	산하가 통일되길.
以此精誠彌六合,	이 지극한 정성이 천지에 가득 차,
神州士氣增英勇.	중국의 사기에 용감함과 출중함을 더하네.
顯聲威,	명망을 드러내고,
努力掃檣槍	사악한 세력 제거하느라 힘써,
金甌鞏.	국토가 공고해졌지. ⁴²⁾

1962년 丁寧은 安徽省 政協대표와 위원으로 선출되어 周恩來의 초청을 받아 黃山에서 개최하였던 지식인 좌담회에 참석하였다.⁴³⁾ 주은래의 인품과 덕행에 대해 칭송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 및 업적에 대해 송축하였다. 주은래의 청렴과 절개를 높이 평가하고 그가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주은래의 명망과 업적을 기리며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중국의 국토가 보전되길 기원하였다. 丁寧은 「臨江仙·職業回憶(中年)」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고하였다.

補屋牽蘿居不易,	담쟁이 끌어다 집을 보수하고 사는 것 쉽지 않아,
飄零且寄他鄉.	떠돌다가 다시 타향에 기거하네.
危樓風雨恨茫茫.	높은 누각에 부는 비바람은 한이 끝없는데,
抄書愁日短,	책을 베껴 쓰니 시름하는 날이 짧아지네.
數墨嘆更長.	글을 헤아리니 탄식만 더욱 길어지네.

歷盡辛酸歸宛委,	힘든 일 다 겪으니 우여곡절로 돌아가고,
百城坐擁琳琅.	아름답고 진귀한 장서는 풍부하네.
已拚生死共存亡.	이미 생사 걸고 존망을 함께 하니,
守殘完素志,	파손될 책을 지켜내 평소 의지 완수하니,
遠禍入清涼.	화를 피해 평온해지네. ⁴⁴⁾

42)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91쪽.

43) 上揭書, 12쪽.

44) 上揭書, 90쪽.

丁寧은 중년에 궁핍한 삶을 살았고 항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서의 우수와 고독을 느꼈다. 丁寧은 자신의 인생에 붙어 닳치는 시련으로 인해 마음속의 고통과 한이 넘쳤지만 도서관에 취직하여 古書를 교감하면서 위안을 받았고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탄식을 詞로 표현하였다. 丁寧은 安徽省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일본군, 국민당 군인, 홍위병의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善本을 내주지 않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킨 자부심을 드러냈다.

7.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중국 현대 여성 작가 丁寧이 지은 『還軒詞』를 중심으로 그녀의 험난했던 삶과 詞 창작을 토론했다.

첫째, 丁寧의 생평과 詞壇배경을 살펴보면 丁寧은 1902년 江蘇 鎮江에서 출생하였고 태어난 지 13일 만에 생모가 병사하여 계모의 손에서 성장하였다. 13살 때 아버지가 재산문제로 친척들과 다투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16살에 계모의 명에 따라 黃福華와 결혼했는데 술과 외도로 괴롭힘을 당했다. 2년 후에 딸 文兒를 낳았는데 1924년 2월 13일에 딸이 병사한 후 丁寧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계모가 재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강요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丁寧은 詞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전통 결혼의 폐단을 고발하고 내면에 쌓인 울분과 피눈물을 완곡하게 토로하였다. 둘째, 丁寧과 師弟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丁寧은 陳含光선생한테 詩詞와 그림을 배우며 정신적인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제자 黃懿嫻은 부모를 상실하고 계모 밑에서 자랐고 남편이 병사한 후 정녕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정녕은 合肥에 거주하며 자신을 돌봐주었던 王元莊이 사망한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애도하는 詞를 지었다. 卓孟飛은 1978년 8월 合肥에 지진이 났을 때 丁寧을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丁寧은 고향 친구인 戴味琴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흉보를 접한 후에 詞를 창작하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셋째, 丁寧은 民初詞壇에서 저명한 詞學家인 龍榆生, 夏承燾와 활발하게 교류하

였다. 龍榆生은 夏承燾의 추천으로 丁寧을 알게 되어 『詞學季刊』에 丁寧의 詞를 등재하여 명성을 날리게 하였다. 다섯째, 丁寧은 평소 만성적인 위 질환과 우울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5년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戴眞光의사를 통해 고양이한테 전염된 것이 밝혀져 적절한 처방을 받아 낫자 詞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섯째, 丁寧의 시대 체험과 현실인식을 살펴보면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丁寧은 上海, 南京, 鎮江, 揚州를 떠돌아다니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나그네로서의 설움을 표현하였다. 丁寧은 자신이 겪은 삶의 고난과 시대의 아픔을 전통적인 詞라는 장르를 사용하여 淒涼하고 沈鬱한 풍격으로 표현하였다.

근대시기에 살았던 丁寧은 불합리한 전통 결혼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모에 대한 의존이 강해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다가 끝내 침묵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점은⁴⁵⁾ 그녀가 사회적인 가면을 벗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최초로 丁寧의 삶과 창작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라 앞으로 丁寧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參考文獻〉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商務印書館, 1937.
 譚正璧著, 『中國女性文學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4.
 丁寧,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蔡文錦, 「著名女詞人丁寧年譜」, 『文教資料』, 1994.(05)
 張中行, 『丁寧詞』,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5.
 張德鴻, 劉平都編, 『近代詞選釋』,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95.
 蔡文錦, 「傑出的女詞人丁寧百年風流 - 揚州近現代人物傳」, 揚州: 『揚州市政協文史資料委員會』, 1998.

45) 徐壽凱, 「我所知丁寧先生的一些事」, 丁寧著, 劉夢芙 編校, 『還軒詞』,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85, 141쪽.

- 譚正璧, 『中國女性的文學生活』, 金壇: 江蘇光陵古籍刻印社, 1998.
- 鄧紅梅, 『女性詞史』,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 鍾慧玲, 『清代女詩人研究』, 臺北: 里仁書局, 2000.
- 曹正文著, 조성환 역, 『중국문학과 여성』, 서울: 도서출판 시놀로지, 2000.
- 施議對, 『當代詞綜』,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2002.
- 노혜숙, 「중국여성문학의 전개과정과 특징」, 『中國小說論叢』 Vol.15. 2002.
- 劉夢芙, 「安徽近百年詩詞綜述」, 『合肥教育學院學報』 20卷, 第1期, 2013.
- 薛海燕, 『近代女性文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진동원 지음, 송정화, 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 施議對, 「二十世紀中國填詞史話(二)」, 『長江學術』, 2006年 第3期.
- 胡文楷編, 張宏生增訂, 『歷代婦女著作考』(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陳兼與, 『近現代詞話叢編』, 合肥: 黃山書社, 2009.
- 劉夢芙, 『當代詩詞叢話』, 合肥: 黃山書社, 2009.
- 鍾慧玲, 『清代女詩人研究』, 臺北: 里仁書局, 2000.
- 胡文楷編, 張宏生增訂, 『歷代婦女著作考』(增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徐壽凱, 「丁寧先生與諸大家」, 『江淮文史』, 2010.(06)
- 石楠, 「懷念女詞人丁寧先生」, 『世紀』, 2010.(06)
- 陳頌, 「民國女詞人丁寧及其『還軒詞』」, 浙江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丁寧著, 劉夢芙編校, 『還軒詞』(安徽近百年詩詞名家叢書), 合肥: 黃山書社, 2012.
- 曹新華, 「論民國女性詞的創作」, 『學術研究』, 2012年 第5期.
- 馬興榮, 『馬興榮詞學論稿』(上)(下) 上海古籍出版社, 2013.
- 최수경, 「가족, 지역, 국가: 19세기 전기(前期) 여성총집(女性總集)의 담론과 그 의미」, 『中國語文論叢』 63권, 2014.

〈Abstract〉

Modern Chinese Woman Writer Dingning(丁寧)'s Life and the *Ci* Poetry:
Focused on Huanxuanci(還軒詞)

Kim, Seon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Ding Ning's life, the background of the *Ci* poetry world, her spiritual companionships with other female writers, the friendship with male intellectuals, the relationship with her teacher, her disease and the friendship with her doctor, her experiences in the modern times and her *Ci* poetry writing reflected on HuanXuanCi.

First, Ding Ning was born in Zhenjiang in 1902 and lost her mother when she was only 13 days old. Her family then moved to Yangzhou. She was raised by her stepmother and at the age of 13, she lost her father as well. Ding Ning got married to Huang Fu Hua at 16 and two years later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but she lost her child when she was 22. At the loss of her daughter, Ding Ning filed a divorce but her stepmother forced her to make a vow not to remarry for this. She lived the rest of her life as a widow for fifty years. Second, Ding Ning wrote *Ci* poems reminiscing about the times she had spent with her old childhood friend, Dai Wei Qin, after she had left her hometown. When Ding Ning later heard the friend had died ten years ago, she wrote another *Ci* poem lamenting her death. Third, Ding Ning shared a strong friendship with the renowned *Ci* poetry critics, Xia Cheng Tao and Long Yu Sheng exchanging *Ci* poems. Xia Cheng Tao praised her talent and the sincerity of her *Ci* poems and named her as one of the best modern *Ci* poetesses. Long Yu Sheng published her *Ci* poems in the *Ci* Poetry Quarterly where he served as an editor. Fourth, Ding Ning learned poetry and painting from Chen Han Guang. Huang Yi Xian, one of Ding Ning's pupils, lost contact with Ding Ning when her husband died of an illness. Ding Ning had other pupil, Wang Yuan Zhuang, who worked in Hefei and took care of her on her birthdays and holidays. Zhuo Meng Fei provided her house as a shelter for her when an

earthquake occurred in Hefei in August 1978. Fifth, Ding Ning suffered from insomnia caused by inveterate dyspepsia and depression and was taken with an unknown disease for five years from 1975 to 1980. When she was cured of the disease by Dr. Dai Zhen Guang who found out the disease had been caused through the contact with a cat and treated her. Sixth, at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Ding Ning created *Gi* poems conveying the agony and sorrow over the national ruin while wandering around Shanghai, Nanjing, Zhenjiang, and Yangzhou. As she worked at Nanjing Central Library and Anhui Provincial Library for forty years, Ding Ning organized the editions of ancient books and the catalogues, and risked her life to protect 300 thousand rare editions from the invas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the Kuomintang's army and the Red Guard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Key Words: Chinese Modernwoman, *Gi* poetry, Dingning(丁寧), Huanxuanci(還軒詞), exchange

關鍵詞: 中國現代女性, 詞, 丁寧, 還軒詞, 交流

이 논문은 2016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7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